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의료시설 체계적 파괴…붕괴 직전”

### “의료인 수백명 구금·살해…항암·신부전 투석 등 불능” “핵폭탄 맞은 듯”…36개 대형병원 중 10곳만 최소기능

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현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폭격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구호단체와 국제기구 등은 이를 체계적인 파괴라고 비판한다.

이스라엘군이 병원 전체를 파괴하고 구급차를 공격했으며 수백명의 의료 종사자를 죽이거나 구금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하마스 대원들이 의료시설 인력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한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의료용

품이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말 기준 가자지구의 36개 대형 병원 가운데 10곳만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국제구조위원회(IRC)의 시아란 도넬리 수석 부회장은 20년간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는데 의료 시스템이 이처럼 빨리 완전히 파괴된 다른 전쟁을 떠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이스라엘군이 급습한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병원에서 일했던 마흐무드 알-레케브 의사는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 시스템 피해 수준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나세르병원의 정형외과를 포격하고 수십명의 의료 인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교전이 장기화하면서 가자지구 곳곳의 의료 시설들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사진은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아이들. /EPA=연합뉴스

을 구금했다고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11월 의료시설과 관련 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시스템이 타격을 받으면서 마취 없이 수술하고, 암 환자들에 대한 화학요법을 중단하면, 신부전 환자들이 투

석을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현지 의사들의 전언이 잇따랐다.

가자지구 암 전문의 가운데 한 명인 자키 자크주크 박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내 환자들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일하던 암 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가자지구 남부의 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는 환자들의 면역력 약화를 우려해 화학요법 대신 진통제 투여 등 완화 치료만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고 한탄했다.

3월에는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체에 있는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병원은 이스라엘군의 두 번째 급습과 병원 안팎의 총격전, 공습 등으로 파괴됐다.

알시파병원 상태를 조사한 WHO는 “환자는 없고 대부분 장비는 사용할 수 없거나 썩더미로 변한 ‘빈 껍데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자원봉사를 위해 가자지구로 간 미국의 소아과 의사 타나 하지 하산은 가자지구 전체가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복 입은 마리암 나와즈 사리프 파키스탄 펀자브 주총리(왼쪽).

## 파키스탄 여성 주총리, 경찰복 입고 행사 참석 ‘찬반 논란’

보수적인 파키스탄에서 여성 주총리가 여경 졸업식에 경찰복을 입고 참석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북동부 펀자브주의 마리암 나와즈 사리프 주총리는 지난 25일 주도 라호르에서 열린 여경 졸업식에 경찰복을 입고 참석했다.

사리프 주총리는 축사에서 펀자브주 경찰에 여성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남녀 비율이 각각 50%로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총리가 여경 졸업식에 경찰복을 입고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

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주의회 야당 지도자들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셜미디어에도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뭘지 묻는 비판 의견이 쇄도했다.

라호르의 한 변호사는 경찰관 흉내를 냈다며 형사법원에 탄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펀자브주 집권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나와즈와 펀자브 경찰은 주총리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총리가 경찰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도 있고 주총리의 이번 행동으로 경찰의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 태도 바꾼 바이든 “트럼프와 기꺼이 토론하겠다”

### 트럼프, SNS 글 올려 “언제든, 어디서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한국시간) ‘하워드 스톤 라디오 쇼’ 인터뷰에서 진행자 스톤이 “트럼프와 토론하겠다”고 질문하자 “그렇다, 어디선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난 기꺼이 그와 토론하겠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는 식으로 모호하게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측근 일부는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하는 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그간 토론에 부정

적인 입장이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언제든 응하겠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보같은 조 바이든이 토론 의향을 밝혔다. 실제로는 그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그가 토론에 나선다면, 나는 ‘언제, 어느 장소든, 아무데나’라고 말하겠다”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 어느 장소든, 아무데나”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여를 압박해왔다.

## 타이태닉호 탑승객 금시계 20억에 팔렸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로 사망한 미국 재계 거물 존 제이콥 애스터 4세가 남긴 금시계가 27일(현지시간) 경매에서 117만파운드(약 20억1천만원)에 낙

찰했다. 예상 낙찰가이던 10~15만 파운드(약 1억7천~2억6천만원)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타이태닉호에서 수습된 물품 중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

타이태닉호가 침몰할 때 연주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린은 2013년 경매에서 110만파운드(약 19억원)에 낙찰됐다.

애스터 4세의 금시계는 타이태닉호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가을에 잡혀있는 토론 일정을 당기고 추가 토론 일정을 잡아달라는 서한을 대선 토론 주관위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앞서 보낸 이후 자살을 고려했었다는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스키 한 병을 꺼내 취하도록 마셨다”며 “자살을 저지르기 위해 정신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멜리웨어 메모리얼 다리에 올라 뛰어내리자는 생각도 했다”며 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침몰 7일 뒤 대서양에서 그의 시신이 수습될 때 키프스단추 등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발견됐다.

14K로 도금한 이 회중시계는 미국 시계회사 ‘월섬(Waltham)’이 제작한 것이다. 애스터 4세의 이니셜 ‘JJA’도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